박주선 국회 교문위원장 인터뷰

“문화전당 인력 충원 나서겠다”

신당 창당은 호남의 명령 정치 일생 걸었다

문화산업 육성 준비 지역정치권 소통 중요

광주 문화수도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국회 교문위원장(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장)에 선출돼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의 ‘친노 패권주의’ 청산과 호남 정치 복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신당 논의를 주도하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일보는 지난 15일 국회 교문위원장실에서 박 의원을 만나 광주 문화수도 위기 극복 방안과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들어봤다.

–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평가한다면.

▲국비 지원도 충분히 못했고, 메르스 사태, 북한 선수단 불참 등 각종 악재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한 대회로 만들었다. 광주 시민의 힘이 돋보였으며 광주의 자존심을 보여줬다. 아시안 게임보다 더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추후 국내 국제대회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광주 문화수도 조성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의 직제안 축소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문체부 장관이 운영하면서 직제 개편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계속 점검하면서 국정감사 및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인력 충원 등에 나서겠다.

– 당에서 정부의 직제 개편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인데.

▲실효성이 없다. 현실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되지도 않을 일을 한다고 기대감만 부풀여서는 안 된다. 좀 더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 공무원 숫자보다는 컨텐츠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유치하고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 광주 문화수도 조성을 위한 시급한 대책은.

▲정부의 각성도 필요하지만 광주시의 철저한 준비도 중요하다. 문화수도 조성 계획은 정부가 하지만 실행 계획은 광주시에서 만들어야 한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및 신당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단 혁신위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지만 회의적이다. 9월에 나오는 혁신안이 친노 패권주의 청산과 중도·개혁·민생·실용 정당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한다면 탈당 및 신당 참여에 나서겠다.

– 혁신위 활동에 대한 입장은.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혁신에 나서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오히려 문재인 대표 체제를 강화하고 보호하는 방향의 혁신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

– 친노 패권주의를 정의한다면.

▲‘교조적 진보’, ‘좌파적 정책’에 매몰되어 있고 행동보다 구호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친노 만의 가치로 재단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행태를 보이면서 당내 패권은 놓으려 하지 않는다. 결국 당의 단합을 해치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정권 창출도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 신당이 유일한 방법인가.

▲새정치연합이 성공하지 못하면 새누리당을 견제하고 경쟁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야당을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적 도의이고 책임이다.

– 너무 강경한 것 아니냐.

▲정치 일생을 걸었다. 혁명하는 심정이다. 정권 창출과 호남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우겠다. 호남 정치권으로도 현재의 상황이 새로운 전환과 도약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호남 민심을 어떻게 보는가.

▲새정치연합으로는 정권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북도당과 전남도당의 여론조사 결과, 실체도 없는 신당 지지율이 새정치연합을 압도하고 있다. 신당 창당은 사실상 호남 민심의 명령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호남 민심의 지지가 없는 새정치연합은 바람 빠진 풍선이 된다.

– 신당의 성격은.

▲호남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정당이다. 중도개혁적 가치와 민생과 실용을 우선하는 정체성을 보여야 한다.

– 신당 참여 현역 국회의원 규모는.

▲적어도 20~30명은 될 것이며 40~50명을 쉽게 넘어설 것이다.

– 호남 정치의 붕괴 원인을 진단하면.

▲노무현 정권 탄생 직후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호남정치가 고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친노 세력이 당을 장악하면서 호남 정치권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의 분열도 원인이 됐다. 특히, 인구 등 정치공학적 판단에 따른 호남 대선주자는 안 된다는 ‘패배주의’에 빠져 비호남 정치인을 주목한 것도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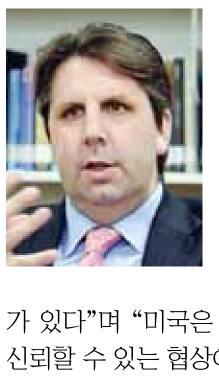
–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은.

▲샛강이 합쳐져 큰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정치적 관점이 조금 다르더라도 궁극적으로 함께 할 것으로 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美, 북한과 진정성 있는 협상 준비 돼 있다”

리퍼트 주한미대사, 北 태도 변화 촉구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6일 이란과 쿠바, 미얀마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이 북한과도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미국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며 “남북 대화든, 6자회담이든, 역내 다른 국가와의 회담이든,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 추구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다”며 “이는 이란, 쿠바, 미얀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대북정책에 관한 청중의 질문에도 “미국은 회유(appeasement)가 아닌 원칙에 기반한 외교를 펼칠 의지가 있다”며 “미국은 북한과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리퍼트 대사는 “북한은 이란, 쿠바, 미얀마와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비핵화와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대화 상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취소, 북중관계 악화 등을 거론하며 “공은 북한에 가 있다”고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북한은 대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북미 대화뿐 아니라 남북대화, 6자회담의 나머지 5개 당사국들과의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현재 한미 양국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다”며 “관계가 좋을 때 새로운 미래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이 함께 진출해야 할 분야로 에너지, 사이버, 우주, 환경, 기술 등 5가지를 꼽고 이것이 하반기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 만한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여름 말이나 가을 초에 TPP 협상이 마무리되면 한국과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식중독 예방 손바닥 세균 검사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여름 식중독예방을 위해 맞춤형 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있다. 16일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중흥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의 손바닥 세균오염도를 검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도, 부단체장 등 3급 이상 인사

도의회 사무처장 임영주 도민안전실장 정병재

전남도는 16일 3급 이상과 부단체장, 준국장 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했다. 임영주 광양부시장이 이사관인 전남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승진하고 도민안전실장(이사관)에는 정병재 전남도의회 사무처장이 전보됐다.

부이사관인 경제과학국장에 최종선 해양수산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에 윤광수 공무원교육원장, 한국전력 지역협력관에 행정자치부에서 파견된 서기원씨가 임명됐다.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에는 김병주 창조산업과장, 관광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에 이기환 담양부군수, 공무원교육원장 직무대리에 윤승중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승진 발령됐다. 목포부시장에는 이재철 관광문화체육국장, 광양부시장에 신태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이 전보됐다.

준국장급인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에는 김태환 식품유통과장,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에 박상석 의회사무처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의회사무처 정책담당관에 심남식 관광과장, 도립도서관장에 노래영 문화예술과장이 각각 전보됐다.

서기관급 부단체장인 나주부시장에 이기춘 전남도 노인장애인과장, 담양부군수에 홍성일 안전정책과장, 고흥부군수에 주순선 농업정책과장, 영암부군수에 김양수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완도부군수에 차주경 해양항만과장이 임명돼 자리를 옮겼다. 조정훈, 이준수 서기관은 공로연수에 들어갔다.

전남도 관계자는 “서기관급 부단체장은 직무대리 포함해 경력 4년 이상자 14명을 대상으로 시장, 군수와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고, 중앙부처와 인사교류 경력자를 우선 선발한다는 방침에 따라 행자부와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2명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